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이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하나님 같은 이 누구인가

(시편 113:1-9)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높으신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부적절한 것이지만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위대한 왕과 같은 분, 그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유추로 그가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5-6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도 없고, 하나님 같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 찬양으로 부름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1절).

시편 113편은 강한 찬송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 찬양의 모델이라 할 만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세 연의 처음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1-3절에서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온 것은 여호와와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시대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도 여호와와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강조합니다. 1-3절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4번, 할렐루야(여호와를 찬양하라)까지 합치면 5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5절, 9절에서도 여호와와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름, YHWH를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해서 감히 발음하지도 못했습니다. YHWH는 하나님의 속성을 풍부하게 나타냅니다.

- ① 하나님은 인격신이다(God is a person)
- ② 하나님은 자존자이다(God is self-existent)
- ③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다(God is self-sufficient)
- ④ 하나님은 영원하시다(God is eternal)
- 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God is unchangeable)

2. 하나님은 천지를 살피신다.

“해 뜬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3절).

하나님은 해 뜬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받으시도록 여호와와 종들을 부르십니다.

3절과 4절은 말라기 1:1과 정확히 병행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 1:11).

“여호와와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5절).

이 말씀은 본 시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묻고 있는 질문이며,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됩니다. 그리고 미가 자신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 7:18)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높으신을 찬양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낮은 곳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은 하늘과 땅을 모두 살피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3. 짓밟힌 자를 올리신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7절)

하나님은 짓밟힌 자를 자기처럼 올리시려고 세상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일으키셨고, 가난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어 왕자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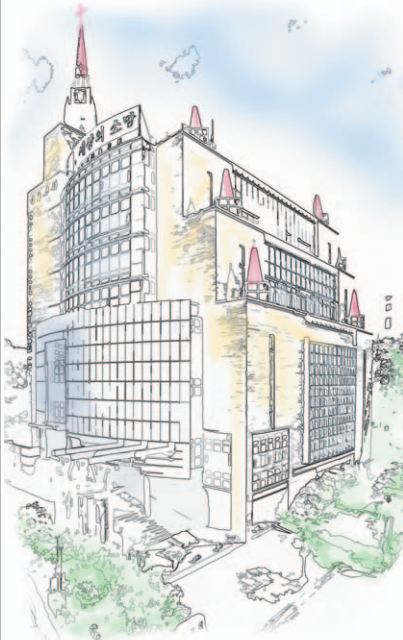
이 말씀은 한나가 기도로 얻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린 기도문에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에도 나옵니다.

어떤 이는 시편 113편이 연약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으신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자녀를 얻는 기쁨을 주고 계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본시의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언제나 낮은 데 있는 우리들을 조심스럽게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09년 홍해작전 -

오늘 찬양예배시 개전식 / 6월6일(토) 오전 5시 분당

주제 : 섬겨야 합니다 / 표어: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며 소망으로 전도하자!

6월6일(토) 오전 5시, 2009년 홍해작전 승전을 위한 첫 시간이다. 이번 홍해작전은 “섬겨야 합니다”를 주제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며 소망으로 전도하자!”를 표어로 정하고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홍해작전 기간 중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박노철 목사(구리지구교회)가 16일부터 25일까지 이종윤 목사(서울교회)가 준비된 은혜로운 말씀으로 각각 새벽강단을 지킨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6일(현충일)부터 6.25전쟁 발발일인 25일까지 매일 새벽5시에 열리는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

도의 장으로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간구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기회이다.

이번 홍해작전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7대 기도제목을 준비하여 오늘 주보 삼지로 첨부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7대 기도제목을 가지고 시간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여 북한의 안보위협이 무산되고 북측화된 통일조국이 광복70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오늘은 유년부 대신자 초청의 날

유년부 어린이들은 한 달 전부터 대신자에게 초청카드를 보내고 기도로 준비하여 왔고,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대신자 초청의 날을 준비해 왔다.

유년부 어린이들은 대신자로 작성하고 기도한 친구를 초청하여 1부 가족예배를 함께 드린 후, 701호에 모여 초청의 날 잔치를 가진 후 8층 만나홀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호산나학교 재학생 제23회 서울지적장애인 사생대회 수상



지난 4월 30일 서울 보라매원 공원에서 열렸던 제 23회 서울지적장애인 사생대회에서 호산나학교 재학생 서

민규(컴퓨터 그림 금상수상), 윤현규(사생화 초등부 동상수상)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다.

시상식은 5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메트로 미술관에서 수상자 57명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교 수상자인 서민규, 윤현규학생이 각 부분 대표수상을 하였다.

아가페타운 건립 위한 호산나학교 햇간장 출시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호산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진 ‘콩된장’, ‘다림간장’에 이어 지난 5월 26일 호산나 햇간장이 새로이 출시되었다.

국산 메주콩 100%와 천일염에서 만들어진 ‘호산나 햇간장’은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대(베델하우스)에서 따스한 별과 청정한 바람에 숙성되어 만들어진 우수한 품질의 간장이다.

호산나 햇간장의 수익금은 지난 콩된장, 다림간장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아가페 타운 건립에 사용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잔 국제 지도자 대회 Lausanne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 6월8일(월) 오후 6시 개회예배 - 서울교회 본당에서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귀한 물질로 도운 로잔국제지도자대회(Lausanne International Leadership Meeting)가 6월 8일(월) 오후 6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2일(금)까지 5일간 계속된다.

로잔국제지도자대회는 한국로잔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서울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Capetown)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 로잔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모임(리허설)의

성격으로,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대표들이 가장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 함께 I.T. 산업의 발달로 희의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교회는 6월8일(월) 오후 6시 본당에서 개회예배를 개최하고 이어 8층 만나홀에서 환영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그 후의 모든 일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입국하여 은혜 중에 모든 순서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장년부 - 『요한복음강해 3권』 교재로 - 6월 7일(주) 부터 -

장년부는 6월 첫 주일 부터 이종윤 목사의 저서 “요한복음강해” 3권을 교재로 성경공부를 진행한다.

장년부 성경공부는 매주일 주일1부 예배 후 본당 3층과 4층 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서울교회 장년 성도들은 누구나 참석해야 한다. 아직 장년부 성경공부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그동안 장년부에서는 ‘요한복음강해’ 1권과 2권을 공부해 왔다.

장년1부는 30대(30~39세)로 401호에서, 장년2부는 40대(40~49세)로 301호, 장년3부는 50대(50~59세) 401호, 장년4부는 60대(60~69세)로 301호, 장년5부는 70대 이상(70세~)으로 603호에서 모인다.

새롭게 출발하는 장년부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전교인의 적극적인 참석 바란다.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 1일부터 여름철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 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남녀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다락방 교재 다운로드 서비스 안내

서울교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서울교회 다락방 보고” 배너를 클릭하면 각 주 차별 다락방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락방 보고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바란다.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서울교회와 홍해작전

홍성주 장로(홍해작전 참모장)



서울교회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2년 6월 6일 새벽 5시에 “새 마음, 새교회, 새역사를 이루자”를 행동강령으로 삼고 홍해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기도로써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조국의 안전, 민족교회와 서울교회의 비전,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움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회개운동이며, 말씀과 기도 작전”입니다.

특히 올해는 로잔국제지도자대회와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대회가 홍해작전 기간에 우리교회를 중심으로 개최되기에 성공적인 진행과 열매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며 소망

으로 전도하자”를 표어로 내걸고 6월6일 (토)부터 6월 25일(목)까지 20일간 매일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풍성한 말씀을 선포하실 특별강사로는 서울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구리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노철 목사님입니다.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락방식구들은 서로를 깨우고 격려하며 차량동승으로 섬기고, 엄마아빠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사랑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즐거울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여 말씀을 받아 홍해를 가르고 승전하는 벅찬 감동의 시간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하여 참된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세우고 장차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받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시민양성

35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며...

수료자 대표 한연수 목사(송현중앙교회)

요즘 한국교회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까지 ‘말씀대로 말씀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속에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정작 말씀은 실종되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 29:18)란 말씀과 같이 교회마다 자기들 좋을 대로 방자히 행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들의 생각을 설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과 같이(렘 2:13) 이러한 말씀의 홍수 속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실종되어가는 이때에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께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개설하셔서 성경을 간결하고 명쾌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해주시기를 35회에 달하니 35회

수료자를 대표해서 감사에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넘쳐서 전국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 세미나를 여신 것이 아닙니다.

서울교회가 처음 개척한 장소는 협소하고 일꾼들은 적은 데서도 목사님은 사랑으로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들의 목회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서울교회를 지금과 같이 큰 교회로 이루어 주셨으니 목회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종윤 목사님이 큰 스승이십니다.

이 또한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 목사님의 학문을 강의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끝없는 희생과 봉사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종윤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사랑의 목회를 배운 우리들은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일선 목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목회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은

김장섭 집사(13교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성도님들의 위로에 힘입어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로 환송 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아버님에 대한 천국환송을 통해 저희는 육신의 부모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뵈 수 없다는 슬픔보다, 섬세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완고한 성격 탓에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버님이셨지만, 77세에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주님을 영접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중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도 사용하시다 4일 정도의 짧은 투병생활 후 80세에 주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의 삶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의 말씀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잘 어울린 은혜로운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면 관계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섬세한 섭리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형제들 사이의 수많은 오해와 갈등, 각 가정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가 좀 더 빨리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든든히 세웠다면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지금부터 사람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이 땅의 상급과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고 천국백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 하옵소서.



나의하나님

기도의 열매, 우리가정

이근대 집사(12교구)

저에게는 10년 전부터 꿈꿔왔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정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힘들고 어려울 땐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가정,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와 즐거운 식사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함께 교회로 향하는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을 그리며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 받고 좋았던 청년시기를 보내고 그 안에서 좋은 아내를 만나 지금은 8개월 된 너무도 예쁜 딸 수아도 주셨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딸 수아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함박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줍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은혜로 채우고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 저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이젠 10년 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와 딸 수아와 언젠가 주실 또 하나의 자녀와 함께 온전한 주일예배를 위해 한주를 살아가는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주님 안에 안전한 가정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늘 제게 귀했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셨던 홍해작전을 향해 저희 가정이 달려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 특별찬양은 미국 줄리아드(Juilliard) 음대에 재학 중인 기독교 대학생(KCCC)들로 구성된 실내악단의 찬양으로 준비된다. 이 실내악단은 선교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림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신자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주님께 영광 외 3곡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단원은 박선영(3학년, 작곡 전공), 유진석(3학년, 바이올린 전공), 김새롬(2학년, 클라리넷 전공), 조푸름(2학년, 성악전공, 소프라노), 추연경(대학원, 피아노 전공) 등이다.

CTS TV- 로잔운동 죄담 방영

로잔국제지도자대회(6월8일-12일)를 앞두고 CTS TV는 이종윤, 조종남, 김상복, 이광순 목사의 죄담을 녹화하여 6월2일(화) 오후2시10분 방영하고, 6월4일(목) 오전 3시 재방송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6월2일(화) 예정(통합) 전국장로회 Elders' school 강사로 강의한다. 3일(수) 장로교단 총회장 초청 장로교의 날 행사 설명회를 갖는다.

■ 취임: 광동국 성도(11교구) (주)인포티엠 코리아 대표이사 취임 원용규 집사(9교구) (주)인포티엠 코리아 전무이사 취임

■ 개인전: (13교구) 김경미 집사, 세종호텔 갤러리 6월2일(화)~6월9일(화) (8교구) 유은경 집사 장은선 갤러리 6월3일(수)~6월9(목)

■ 득녀: 오유록 성도 이주현 성도 가정(독일, 12교구 오길택 집사 박정섭 권사 아들 가정)

■ 득남: (5교구)안인선 집사 강혜진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션교회(5.24) 베드로선교회(5.31)

■ 금주의 식사: 김명근 김은영 성도 가정 (결혼을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예 배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나의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최인애 성도(대학부)



저는 2002년 서울교회에 처음 나왔고 그 때부터 홍해작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권유로 갔었는데 그때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수업시간에 졸려서 오히려 안 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참석하여 은혜 받고나니 홍해작전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셨고 나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제목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홍해작전 때가 되면 항상 전날에 학교 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성령님께서 일어

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달려 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홍해작전 때 마다 신앙의 기초를 쌓아 주셨고 남을 위해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홍해작전을 통해 저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홍해작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홍해작전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기도제목들이 많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제목들을 조목조목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려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5월 27일), 서울교회는 육사 세례식을 집례하였다.

우리교회는 올해도 간호 사관학교를 필두로 각관 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를 주관했고 해마다 육사 신입생 세례식을 집례하고 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말씀과 기도로 홍해를 가르는 홍해작전 위하여
3. 로잔국제지도자대회,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세계적 경제 대란을 잠재우고 북한의 전쟁위협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